

종합

장등동~용전간 순환도로 공사 9월 본격 추진

광주 북부권 교통망 확 뚫린다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왕복 4차선 총사업비 1,700억 투입

광주 일곡지구와 양산지구 등 상습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 북부권의 교통망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북부 장등동 도동고개에서 일곡·양산지구를 거쳐

등동~용두동에 이르는 6.9km(왕복 4차로) 구간이 건설된다.
시는 오는 9월 설계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능력평가 등에 들어가 2012년 완공, 당초 2015년보다 3년 앞당겨 개통할 계획이다.
북부순환도로가 개통되면 하남산단과 첨단산업단지, 일곡지구, 문흥지구를 통행하는 차량들이 주로 이용할 것으로 보여 호남고속도로 인접도로의 교통난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 망월동 인근 지역과 담양지역에서 출발하는 차량들은 첨단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광주교도소를 거쳐 문흥, 일곡, 양산지구를 통과하는 방법 ▲광주교도소를 거쳐 문흥, 일곡지구를 지난 뒤 연제동을 통해 운암

동으로 빠져나가는 방법 등 2가지 이동 방법 중 하나를 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북부에서 첨단 방면으로 운행하는 운전자들은 극심한 정체로 30분 이상의 시간을 소비해야 한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가장 혼잡한 지역은 일곡지구 일곡병원 사거리 일대와 현대병원 사거리, 양산지구사거리, 연제동 코카콜라 사거리~운암동 구간 등이다.
북부순환도로가 완공되면 장등동도동고개에서 첨단지구 간 운행 시간이 30분에서 10분으로 20분 가량 단축될 뿐만 아니라 교통량 분산 효과로 인해 상습 정체 구간들의 교통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분석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일해공원' 명칭 항의 영화표 발송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은 7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해공원' 명칭에 항의해 합천군수와 군의원에 대해 광주민주화운동을 주제로 한 '화려한 휴가' 영화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멋대로 썼다'

광주시, YMCA·생활체육協 등 4곳 실태 감사
회계장부 안쓰고 예비비로 명함제작 등 적발

광주 YMCA 등 광주지역 민간·사회단체의 보조금 집행실태가 허술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YMCA와 시 생활체육협의회, 여성인력개발센터, 광주·전남지역혁신협의회 등 4곳의 2004~2006년 3년간 시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 결과 모두 15건의 부당사례를 적발했다.
광주 YMCA는 운영 보조금을 단체장의 사용자 변경 승인없이 집행하고, 예비비로 명함제작이나 사업보고

서를 제작하는 등 예비비 집행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시 생활체육협의회는 체육시설 안전사고에 대비한 배상보험의 미가입, 회계장부 미기록 등이 적발됐다. 또 심판관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수당 지급이 기준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으며, 7만여명이 참여한 어린이 체능교실 등 6개 사업은 상황에 따라 실제 징수가 가능함에도 10년 넘게 무효로 운영해오다 지적됐다.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경우 기본 조례가 제정된 뒤 7개월이 지났으나 세

부 관리운영 규정을 제정하지 않아 감사에 적발됐으며 보조금 집행과 정산보고 지연 등 업무처리 미흡이 한 점도 지적됐다.
이와 함께 광주·전남지역혁신협의회는 각종 세미나 참석자 수당 지급과 관련, 지급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당을 지급했으며 불필요한 회계 고문을 선정해 자문료 510만원을 낭비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광주시 관계자는 "연간 보조금이 1억원 이상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2004년부터 3년간 보조금 집행실태를 감사했다"며 "이들 단체의 3년간 보조금 규모는 개별적으로 적게는 3억원에서 55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 성공 기원
서울 도심서 '종이비행기 날리기'

2012년 세계엑스포 개최지 결정을 100여일 남겨두고 서울 도심에서 여수의 세계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종이비행기 날리기 행사가 열린다.
해양수산부는 8일 출범 11주년 기념일을 맞아 서울 종로구 계동청사 옆 원서공원에서 기념식 겸 2012년 여수세계엑스포 유치 결의대회를 연다. 이날 행사에는 강무현 해양부 장관을 포함해 전직원과 해양경찰청, 해양수산 유관단체, 해양소년단연맹 등 500여명이 참석해 유치를 염원하는

종이비행기를 날릴 예정이다.
아울러 그룹 SES 출신 인기가수 '바다'가 여수세계엑스포 유치 및 바다사랑 홍보대사로 위촉돼 함께 종이비행기를 날린다.
참가자들은 이후 인사동과 안국역 주변에서 여수 엑스포 유치와 관련한 가두 홍보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해양부 본부와 지방 해양수산청 소속 직원 4천여명은 이후 여수세계엑스포 유치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헌혈에 나선다.
/연합뉴스

정몽구 회장 '명예 여수시민' 된다

현대기아차 그룹 정몽구 회장이 명예 전남 여수시민이 된다.
7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2012세계박람회 중앙유치위원회 고문인 정몽구 회장에게 오는 20일 명예 여수시민증을 수여한다.
2010 세계박람회 중앙유치위원장으로서 한차례 실패를 경험한 정 회장이 여수시의 2012 세계박람회 유치 재도전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고 있는데 대한 답례 차원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정 회장의 엑스포 유치 열정이 다른 기업 총수에 비해 남달라 감사 표시로 명예 시민증을 수여하기로 했다"며 "정 회장이 20일 여수시를 방문해 주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정몽구 회장은 2012년 여수세계엑스포 유치 결의대회를 연다. 이날 행사에는 강무현 해양부 장관을 포함해 전직원과 해양경찰청, 해양수산 유관단체, 해양소년단연맹 등 500여명이 참석해 유치를 염원하는

빛日만평

- 김중두



그나저나 체력들은 좋다

인사말 (Obituary notice) for a woman, including names of family members and dates.

광주일보 (Kwangju Ilbo) advertisement for real estate services,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and a list of services.

SONY advertisement for various electronic products and services, including a list of items and contact information.

고시원 (Gosiwon) advertisement for real estate services, including a list of properties for sale and contact information.